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의 형성요인

— 제조업을 대상으로 —

전 인 우

본 연구는 1990년부터 1996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분류 산업단위의 패널자료를 이용해 수·위탁기업간에 이루어지는 분업생산, 즉 도급거래의 형성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거래특정적 투자가 이루어진 정도, 수·위탁기업간 임금격차, 계열화 정책은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의 확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탁기업의 거래선 다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의 개방화는 경기가 하강기에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 서 론

기업간 분업생산체제는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소재·부품이 어떤 방식에 의해 조달되느냐에 따라 수직통합체제, 시장교환체제,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수직통합체제란 소재·부품을 자체생산하고 이를 이용해 완제품으로 조립하는 생산활동이 한 기업내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체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수직통합 생산체제하에서는 위계(hierarchy) 질서에 의해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시장교환체제란 시장을 통해 여타 기업이 생산한 소재·부품을 구입한 후, 이를 가지고 완제품을 만드는 생산체제이다. 이러한 생산체제하에서는 시장가격을 매개로 소재·부품의 수급이 이루어진다. 시장교환체제는 다수의 소재·부품 공급기업과 다수의 소재·부품 수요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관계를 상정하고 있지만 소재·부품 수요 및 공급기업 간에 일단 거래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소수 거래관계로 발전

할 가능성이 높다. 즉, 시장을 매개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한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통해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거래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분업생산체제는 수직통합체제와 시장교환체제의 중간형태로서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로 불리운다.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는 독립법인간에 이루어지는 분업체제로서 시장교환체제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지만 계약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기업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직통합체제에 가깝다는 점에서 준통합체제로도 불리운다.¹⁾ 이와 같은 분업생산체제는 시장거래와 수직통합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²⁾

준통합적 분업생산체제는 미국의 경우에도 나타나지만 일본의 경우보다는 널리 확산되어 있지 않다(Imai and Itami [16]).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준통합적 분업생산체제가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준통합적 분업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준통합 분업체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 시장거래와 수직통합체제의 스펙트럼내에서 효율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해 간다. 예를 들어, 일본 도요다자동차의 경우 1937년 회사설립 이후 부품기업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통합-분리-준통합체제를 유지하는 순환 양상을 보여 왔다. 이와 같이 거래관계의 유형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거래관계의 유형은 그 산업의 특성에 의해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위탁기업 제품의 수명이 짧고 기술혁신 속도가 크면 거래관계 유형의 재편이 수시로 나타날 수 있다(정병휴·윤창호 [5]).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우리 나라 제조업 부문을 대상으로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형성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으나 특정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거나 실증분석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 장 서론에 이어 제 II 장에서는 우리 나라의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의 현황 및 이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정부정책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제 III 장에서는 회귀분석모형을 설정하여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의 형성요인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제 IV 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1)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준통합 이외에도 도급거래, 하도급거래, 하청계, 계열화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용어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위탁기업은 도급기업, 원사업자 등으로 수탁기업은 수급기업, 하청기업, 하도급기업, 수급사업자 등으로 표현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2) 수·위탁기업간에 자본출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기업간 독립성은 낮아지게 되며, 일정수준 이상의 소유·지배관계가 형성되면 하나의 기업집단내에서 소재·부품이 조달되는 분업체제로 발전하게 된다.

II.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현황과 정부정책

1. 분업생산체제의 비중과 특성

〈표 1〉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전체중소기업 중 수·위탁 분업생산체제에 있는 기업의 위상을 사업체수, 종업원수, 매출액, 부가가치의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제조업내의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의 변화를 살펴보면 도급거래는 점차 확대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1976년 중소기업 중 19.7%만이 도급거래 관계를 해왔으나 1996년에 들어와서는 73.6%의 중소기업이 도급거래를 하고 있다. 이러한 도급거래의 양적 확대는 계열화 업종 및 품목 지정제도의 역할도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정계열화 업종 및 품목이 감소해 온 1984년 이후에도 수·위탁기업의 비율이 더욱 증가하고 있어, 도급거래 확대에 제도적 요인 이외에도 경제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 한편, 자료접근의 한계상 1993년에 국한하여 중소기업내에서 도급거래를 하는 기업들의 종업원수, 매출액, 부가가치액 비중에 대해 살펴보면 종업원수는 과반수를 넘는 56%의 비중을, 매출액은 47%, 부가가치

〈표 1〉 제조업내 중소기업부문에서의 수·위탁 분업체제 위상

구 분	사업체수(개)				종업원수 (천명)	매 출 액 (10억 원)	부가가치 (10억 원)
	1976	1986	1993	1996	1993	1993	1993
도급거래 관련 중소기업	4,564 (19.7)	18,250 (42.5)	47,980 (65.4)	62,099 (73.6)	1,037 (56.0)	49,509 (47.1)	15,585 (51.2)
중소기업	23,165 (100)	42,941 (100)	73,364 (100)	84,374 (100)	1,853 (100)	105,049 (100)	30,452 (100)

주 : ()는 비율을 나타낸다.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76, 1986, 1993, 1997 ; 최동규 · 김광희 [8].

3)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계열화 업종 및 품목은 1980년대 초에 크게 증가하였으며, 1984년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지정계열화업종 및 품목 현황〉

	1979	1980	1983	1984	1985	1990	1995 ¹⁾	1999
업종	5	6	43	44	40	42	36	24
품목	41	71	1,445	1,553	1,256	1,160	1,053	838

주 : 1) 1995년 8월 10일 변경 고시하였다.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3, 1996 ; 중소기업청, 1998.

〈표 2〉 제조업내에서의 수·위탁 분업체제의 특성(1996년)

구 분	도급거래 단계(%)			업체당 평균 거래모기업수					
	1차	2차	3차 이상	제조업		유통업		건설/기타	
				중소 기업	대 기업	중소 기업	대 기업	중소 기업	대 기업
음·식료품	97.8	2.2	0.0	3.3	1.4	0.3	0.2	0.0	0.0
섬유제품	78.3	19.2	2.5	5.8	0.8	0.5	0.0	0.0	0.0
의복 및 모피제품	78.5	20.6	0.9	2.3	1.0	0.2	0.0	0.0	0.0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	83.5	16.3	0.2	3.9	0.8	0.5	0.1	0.0	0.0
목재 및 나무 제품	90.0	8.8	1.2	5.8	1.2	0.1	0.1	1.9	0.4
펄프·종이 및 종이 제품	65.3	31.4	3.3	7.9	2.1	0.6	0.0	0.0	0.0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66.9	32.5	0.6	4.7	0.9	0.3	0.1	0.6	0.1
화합물 및 화학 제품	86.2	13.8	0.0	8.1	1.7	1.1	0.1	0.3	0.1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84.2	14.3	1.5	4.3	0.8	0.2	0.0	1.4	0.0
비금속광물제품	80.3	10.3	9.4	4.2	0.8	0.7	0.0	2.9	0.5
제1차 금속산업	62.0	33.0	5.0	7.8	2.0	0.2	0.0	0.2	0.0
조립금속제품	67.6	29.4	3.0	6.5	1.3	0.2	0.0	1.3	0.1
기타 기계 및 장비	81.4	13.7	4.9	4.5	2.0	0.3	0.0	0.1	0.1
사무·계산 및 회계용 기계	77.3	21.0	1.7	6.1	0.8	0.0	0.0	0.3	0.0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79.0	18.6	2.4	5.6	1.4	0.1	0.1	0.4	0.1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81.6	15.6	2.8	6.1	1.6	0.0	0.0	0.1	0.0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84.5	15.5	0.0	4.1	1.1	0.4	0.0	0.1	0.0
자동차 및 트레일러	64.8	30.9	4.3	3.4	1.7	0.5	0.0	0.0	0.1
기타 운송장비	85.1	14.0	0.9	2.6	1.6	0.3	0.0	0.4	0.1
가구 및 기타	92.7	7.1	0.2	3.5	0.8	0.9	0.1	0.2	0.1
제 조 업	78.0	19.4	2.6	4.9	1.3	0.3	0.0	0.5	0.1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7.

는 5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우리 나라 수·위탁 분업체제의 특성을 도급거래의 중층화 정도와 전속성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표 2〉 참조).

첫째, 1차 도급거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급관계가 단층화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산업별로 보면 도급관계의 중층화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으나 3차 단계를 넘어서는 비중은 매우 미약하다. 반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부문의 경우는 여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급관계의 중층화가 진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3〉 산업별 납품의존도 현황(1996년)

구 분	주거래 위탁기업 의존도 ¹⁾	전체 위탁기업 납품의존도 분포 ²⁾			
		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 이상
음·식료품	43.7	23.0	11.1	9.8	56.1(84.5)
섬유제품	44.1	5.2	5.7	13.2	75.9(93.3)
의복 및 모피 제품	57.3	5.1	7.6	17.2	70.1(74.0)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	40.0	12.5	1.9	7.0	78.6(60.7)
목재 및 나무 제품	37.4	2.7	4.7	8.5	84.1(86.1)
펄프·종이 및 종이 제품	43.4	1.3	3.6	5.0	90.1(82.7)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56.1	1.9	2.9	8.8	86.4(82.8)
화합물 및 화학 제품	35.8	12.9	4.6	7.3	75.2(85.8)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43.1	6.1	16.8	12.9	64.2(82.7)
비금속광물제품	39.5	11.0	4.9	10.7	73.4(93.2)
제1차 금속산업	35.9	9.1	2.5	3.1	85.3(92.7)
조립금속제품	43.4	7.5	1.0	6.5	85.0(93.3)
기타 기계 및 장비	47.8	2.7	5.4	9.4	82.5(84.5)
사무·계산 및 회계용 기계	39.1	3.6	18.3	17.4	60.7(92.4)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50.0	1.7	4.5	20.4	73.4(82.7)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53.9	3.5	0.5	17.1	78.9(84.9)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53.8	3.2	3.7	3.3	89.8(81.8)
자동차 및 트레일러	50.4	5.1	6.3	12.5	76.1(93.8)
기타 운송장비	57.3	0.6	3.2	3.5	92.7(75.0)
가구 및 기타	43.1	3.8	3.1	25.9	67.2(78.9)
제 조 업	46.3	5.4	5.1	11.8	77.7(85.1)

주: 1) 매출액 대비 납품액을 나타낸다.

2) 해당범위내 중소기업수 비중을 나타낸다.

3) ()는 납품의존도 80% 이상 중 납품의존도가 95% 이상인 경우의 중소기업수 비중이다.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7.

둘째, 도급관계는 대기업을 위탁기업으로 하는 중소수탁기업의 전속적 도급거래 구조와 복수의 중소기업을 위탁기업으로 하는 중소수탁기업의 비전속적 도급거래 구조로 나누어져 있다.⁴⁾ 그리고 제조업내의 중소기업들은 주로 제조업내에서 도급

4) 이와 같은 전속적 구조의 특성은 거래단계별로 거래모기업의 수를 분석한 최동규·김광희 [8]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그들은 이에 더하여 도급단계별 수탁기업의 납품액 자료를 이용해 거래단계가 높아갈수록 전체모기업에 대한 납품비중이 높아지고 주거래 모기업에 대한 납품비중은 낮아짐을 밝힘으로써 거래단계가 높을수록 비전속적 경향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외에 수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어느 정도를 위탁기업에 납품하는가를 나타내는 전업성의 정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제조업 전체적으로 주거래 위탁기업에 대한 수탁기업의 납품의존도는 1996년 현재 50%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에 있다.⁵⁾ 전체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의존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납품의존도가 80% 이상인 수탁기업의 비중이 77.7%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납품의존도가 80% 이상인 경우에 납품의존도를 세분화해 보면 상당부분이 95% 이상을 납품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체의 전업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납품의존도가 60% 이상, 80% 미만인 경우는 11.8%로서 생산된 제품의 상당부분을 도급거래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지정계열화 정책⁶⁾

수·위탁 분업체제와 관련된 법제의 기틀은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의 제정으로 계열화의 조성 및 수·위탁 거래관계의 적정화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면서 구축되었지만, 1975년에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이하 계열화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계열화 사업이 추진된 것은 정부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부터 대·중소기업간 관계를 경쟁관계에서 상호보완 및 지원관계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어운배 [4]). 그 후 1978년에 「계열화촉진법」이 개정(1차)되면서 적용대상이 제조업자, 가공업자에서 판매업자, 수리업자까지 확대되고 준수사항이 강화되었다. 1982년의 제2차 법개정에서는 납품대금 중 인건비 부문의 현금지급 조항 포함, 계열화촉진협의회 및 수탁기업체협의회 구성의 제도화 등이 이루어졌다. 1990년 제3차 개정이 있었으나 내용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1995년 7월 중소기업 관련법 통합합 과정 중 계열화정책의 내용이 일부 수정되고 계열화촉진법이 폐지되면서, 관련내용이 「중소기업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협력증진법)」로 통합조정되었다.

5) 납품의존도 분포와 관련하여 최동규·김광희 [8]는 전체위탁기업과 주거래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액 자료를 이용해 수급 중소기업의 29.4%가 전속적(전체매출 대비 주거래 위탁기업 납품 75% 이상) 거래를 21.1%가 준전속적(전체매출 대비 주거래 위탁기업 납품 50~75% 미만) 거래를 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6) 어운배 [4]는 계열화품목지정제도를 하도급거래의 공정화 시책과 더불어 중소기업육성책인 보호정책, 적용정책, 불리보정정책 중 불리조정정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와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원본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과 병행하여 1992년부터는 계열화 예시제가 시행되었다. 계열화 예시제는 수입중인 핵심부품을 계열화 예시품목으로 선정하여 국산개발 단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해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도록 하며, 개발이 완료된 품목은 중소기업 지정계열화 업종 및 품목으로 고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백락기 [3]).

한편, 1984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제정되었다. 협력증진법이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면 하도급법은 수·위탁기업간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의 현황 및 정부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와 같은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는 어떤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인가? 우리 나라에 있어서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가 확산되어 온 데에는 정부의 지정계열화제도가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지정계열화 품목이 감소되는 가운데도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가 확산되어 왔음은 경제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하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의 형성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Ⅲ.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형성에 대한 실증분석

1. 분석모형 및 자료의 설정

1) 분석모형의 구축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의 생성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 형성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회귀모형을 식 (1)과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의 형성을 설명하는 변수는 투자의 특정성과 불확실성 및 경기여건, 자본구조, 노동여건, 계열화 정책변수 등으로 구성하였다.

분석모형 1

$$\begin{aligned} & \text{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 & = F(\text{투자의 특정성, 불확실성,} \\ & \quad \text{경기여건, 자본구조, 노동여건, 계열화 정책}) \end{aligned} \quad (1)$$

거래비용론에 따르면 기업간에 투자의 특정성이 높은 경우, 즉 거래특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거래비용을 절감하려는 동기가 작용하게 된다. Monteverde and Teece [19]의 경우는 미국 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준지대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용변수로서 자산의 특정성 정도에 치구·금형과 같은 특정설비 비용을 곱한 값과 준통합 여부간의 분석을 통해 기회주의를 억제하고자 준통합이 선택됨을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동기가 작용한다면 준통합적 성격을 갖는 수·위탁 분업생산체제의 형성에 정(+)¹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비용 문제를 준통합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면 불확실성은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의 확산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가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수직통합을 통해 거래비용을 줄이려는 동기가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준통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자산의 특정성과 관련된 것이라면 불확실성은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한편, 수·위탁 분업생산체제의 확산 여부는 경기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도급거래의 수탈문제를 강조하는 시각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경기변동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급거래가 이용된다는 것이다. 즉, 경기변동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수요변동이 심한 산업의 경우 불안정적인 수요 부분은 외주를 통해 조달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경기가 상승하는 기간에는 외주가 확산되고 경기가 하강하는 기간에는 외주가 축소된다.

자본구조는 자본절감의 필요성이 수·위탁 분업생산체제 형성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변수이다.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자본의 안정성이 떨어질수록 도산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본절감을 위해서 내제를 줄이고 외주를 확산시킴으로써 자본절감의 필요성과 수·위탁 분업생산체제의 확산간에 정(+)²의 관계를 보이게 된다.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의 임금격차와 같은 노동여건은 수·위탁 분업생산체제의 확산과 정(+)³의 관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주를 통해 수탁기업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동기가 작용한다면 수·위탁기업간 임금격차가 클수록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을 구축하려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병휴·윤창호 [5]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너무 낮은 경우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노동비용이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이

타당성을 갖는다면 임금격차는 수·위탁 분업생산체제의 형성을 유인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수·위탁 분업생산체제의 형성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정계열화 정책은 특정 품목에 대해 신규로 생산하는 경우 동품목에 대해서는 수탁기업에게 제조를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수·위탁 분업생산체제를 인위적으로 구축해 온 측면도 크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업생산의 유형은 도급거래를 통해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에 분업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외에도 시장교환을 통해 소재 및 부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모든 생산이 하나의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하에서도 거래가 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거래선이 다변화되어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⁷⁾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분석모형을 설정하여 거래의 전속성에 관한 추가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분석모형 2

전속적 거래

$$= F(\text{투자의 특정성, 불확실성, 경기여건, 계열화 정책}) \quad (2)$$

2) 추정방법 및 자료

본 연구에서 추정하게 될 회귀분석모형을 일반화시켜 보면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하첨자 i, t 는 실증분석에 이용될 자료가 각각 횡단면자료와 시계열자료로 구성된 패널자료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Y 는 종속변수, β_0 는 상수항, α_i 는 i 번째 산업에 특징적인 관찰되지 않은 요인의 효과(individual effects)를, λ_t 는 시간에 특징적인 관찰되지 않은 요인의 효과(time effects)를, X 는 설명변수, e_{it} 는 오차항을 각각 나타낸다.

$$Y_{it} = \beta_0 + \alpha_i + \lambda_t + X_{it} \cdot \beta + e_{it} \quad (3)$$

분석모형의 추정은 분석에서 이용될 패널자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 분석법에 의해 추정하기로 한다. 고정효과모형은 관찰되지

7) 수탁기업의 거래선 다변화는 위탁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수탁기업의 공유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수탁기업의 공유화는 위탁기업이 복수의 수탁기업에게 생산을 위탁하는 외주업체 다변화와는 다르다.

〈표 4〉 변수의 정의 및 계측방법

주요 변수	산정 방법
종속변수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SC)	수·위탁거래 관련 중소기업수/전체 중소기업수
전속적 거래 여부(NC)	수탁 중소기업이 거래하는 위탁기업수의 평균
설명변수	
투자의 특정성(ASR)	광고선전비/매출
불확실성(UC)	매출·시간간 회귀분석의 (t 기 오차 - 오차평균) ²
경기여건(IP)	추세치를 제거한 산업생산지수
자본구조(DR)	부채/자기자본
노동여건(WD)	대기업 임금수준/중소기업 임금수준
제열화 정책(GP)	해당산업내 제열화 품목수/제조업내 제열화 품목수

주: 모든 자료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중분류 산업단위에서 계산되었다.

않은 산업 및 시간 특정한 요인들을 고정된 상수(fixed constant), 즉 더미(dummy)변수로 처리함으로써 패널자료 분석시의 편의(bias) 발생 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Hsiao [15]).

본 연구에서 이용된 자료는 1990년부터 1996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산업별 자료이다. 산업분류는 분석모형을 구성하는 제변수의 계측 과정에서 자료의 접근이 가능한 중분류 산업단위로 구분하였다.⁸⁾ 중분류 산업단위의 분석은 거래단위 내지 기업단위로 이루어지는 수·위탁기업간의 거래관계를 분석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수·위탁기업간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과 이러한 요인에 영향을 받은 거래관계 형성에 관한 거래단위 내지 기업단위의 정보들이 산업단위의 자료에 반영되어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서 분석 결과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모형의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는 〈표 4〉와 같이 계측하였다.

종속변수로 설정된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SC) 변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중소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이용하여 전체 중소기업 가운데 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하 도급거래율)으로 계측하였다. 전속적 거래 여부(NC)는 동 자료로부터 수탁기업이 거래하는 위탁기업수의 평균치로 나타내었다.

설명변수인 투자의 특정성(ASR) 지표는 한국산업은행 「재무분석」상의 손익계산

8) 산업분류는 17개의 중분류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표 1〉을 참조하시오.

서내 광고선전비를 매출액으로 나누어 준 광고집약도를 사용하였다. Levy [18]에 따르면 제품의 차별화를 위해 표준화되지 않은 부품이 사용됨으로써 거래특정적인 (transaction-specific) 투자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제품의 차별화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광고집약도는 거래특정적인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낸다. 또한, Titman and Wessels [20]의 논의에 따르면 광고비는 거래비용에 영향을 주는 자산의 특정성을 측정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불확실성(*UC*)은 한국산업은행 「재무분석」상의 산업별 매출액을 시간에 대해 회귀분석한 후 얻어진 오차항(error term)으로부터 구하였다. 즉, 추정된 회귀계수는 예상된(anticipated) 수요의 변화를 반영하는 반면, 오차항은 예상하지 못한(unanticipated) 수요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각 시점에서의 오차와 오차평균 간 차이의 제곱으로 계측하였다.

경기여건(*IP*)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상의 증분류 산업 생산지수(원지수)에서 추세치를 제거한 지수를 사용하였다. 추세치는 Hodrick-Prescott 방법에 의해 제거하였다. 따라서, 경기상승기에 추세치를 제거한 산업생산지수는 증가하는 반면 경기하강기에는 감소한다.

자본구조(*DR*)는 한국산업은행 「재무분석」상의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부채비율로 구하였다. 자료로부터 추출된 부채비율은 표본을 통해 구해진 것이라는 점에서 위탁기업의 자본구조를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 산업의 부채비율은 해당산업내 위탁기업의 안정성 정도를 가늠하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동자료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노동여건(*WD*)을 나타내는 임금격차는 「광공업통계조사 보고서」상의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의 종업원 1인당 연간급여액을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종업원 1인당 연간급여액으로 나누어 계측하였다. 그런데 내제와 외주를 결정하는 임금조건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임금차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수·위탁기업간 거래를 설명하는 노동여건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산업내의 대·중소기업의 평균적인 임금은 구성기업들의 임금설정 기준이자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수·위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임금격차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노동여건 변수로 사용하였다.

제열화 정책변수(*GP*)는 제조업내에서 지정계열화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전체 품목수 중에 해당 증분류 산업내에서의 지정계열화 품목이 차지하는 품목수 비중으로 나타내었다. 분석기간중 지정계열화 품목이 변화된 1995년에 대해서는 새롭게 설정된 지정계열화 품목을 적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자료로부터 본 연구가 분석하게 될 회귀모형을 구체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각 분석모형은 전 산업을 대상으로 추정하고, 산업을 경공업과 중공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SC_{it} = F(ASR_{it}, UC_{it}, IP_{it}, DR_{it}, WD_{it}, GP_{it}) \quad (4)$$

$$NC_{it} = G(ASR_{it}, UC_{it}, IP_{it}, GP_{it}) \quad (5)$$

2. 실증분석 결과

1) 제변수의 기초통계 분석

모형의 추정에 앞서 제설명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시도하고 제설명변수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제설명변수(X)에 대한 $X'X$ 행렬식의 고유값(eigenvalue) 분석과 여타 설명변수에 대해 i 번째 설명변수를 회귀 분석함으로써 얻어지는 결정계수(R_i^2)로부터 $1/(1-R_i^2)$ 의 값을 계산해 보았다.

우선 전체산업을 대상으로 한 식 (4)에 대한 제설명변수간 상관관계를 알아보면 <표 5>와 같다.⁹⁾ 상관분석 결과 식 (4)를 구성하는 설명변수간에는 낮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다중공선성 분석에서도 고유값이 판단기준치인 0.01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1-R_i^2)$ 의 값도 최대 1.293으로서 판단기준치 10을 크게 하회하였다. 그리고 다중공선성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X'X$ 의 최대 고유값/ i 번째 고유값)^{0.5}의 값도 판단기준치 30을 크게 하회하는 13.956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식 (4)는 모든 설명변

<표 5> 제설명변수간 상관관계

전 산업	ASR	UC	IP	DR	WD	GP
ASR	1.0000					
UC	0.0357	1.0000				
IP	-0.0026	0.1832	1.0000			
DR	0.2654	0.0075	-0.0664	1.0000		
WD	-0.0554	0.0015	-0.1137	0.0258	1.0000	
GP	-0.2712	0.0241	-0.0083	0.0180	0.2864	1.0000

9) 산업을 경공업 및 중공업으로 분류한 경우의 상관분석 결과는 <부표 2>를 참조하시오.

수를 포함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식 (5)의 경우에도 이상의 상관분석 및 다중공선성 분석 결과에 따라 모든 설명변수를 포함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식 (5)의 경우에도 고유값은 판단기준치를 상회하였고, 최대 $1/(1-R^2)$ 및 $(X'X)$ 의 최대 고유값/ i 번째 고유값⁰⁵의 값은 각각 1.098, 3.786으로서 판단기준치를 크게 하회하였다.

한편, 산업별로 분류한 경우에도 제설명변수간 상관관계는 낮았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산업별로 분석모형을 추정하는 경우에도 모든 설명변수를 포함하였다.

2) 분석모형의 추정

(1) 추정방법에 대한 분석

분석모형 추정시 관찰되지 않은 산업 및 시간에 특정적인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고정효과모형에 의한 분석모형의 추정 과정에서 F -검정을 시도하였다. F -검정은 관찰되지 않은 산업 및 시간에 특정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통합 회귀(pooled regression)를 통해 얻어진 RSS (residual sum of square)와 이들을 고려한 고정효과모형의 추정에서 얻어진 RSS 로부터 식 (6)과 같은 F -통계량을 계산하여 실시하게 된다. 만약 F -통계량이 임계치보다 크면 관찰되지 않은 산업 및 시간에 특정적인 요인이 시간 및 산업 간에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됨으로써 회귀분석시 산업 및 시간에 특정적인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F = [(RSS_p - RSS_f) / (DF_p - DF_f)] / [RSS_f / DF_f] \quad (6)$$

단, RSS_p 는 통합 회귀모형의 RSS

RSS_f 는 고정효과모형의 RSS

DF_p 는 통합 회귀모형의 자유도

DF_f 는 고정효과모형의 자유도

<표 6>은 식 (6)에 따라 모형추정시 관찰되지 않은 산업 및 시간에 특정적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든 경우에 있어서 분석모형의 추정시 관찰되지 않은 산업 및 시간에 특정적인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분석모형은 관찰되지 않은 산업 및 시간에 대한 특정적 요인을 더미변수로 처리한 후 추정하고자 한다.

〈표 6〉 관찰되지 않은 시간·산업 특정적 요인 고려 여부 검정

구분		RSS _P	DF _P	RSS _F	DF _F	F-통계량
SC	전산업	43175.6	112	12041.3	89	10.01***
	경공업	17678.0	42	2531.0	29	13.35***
	중공업	24331.9	63	7913.4	47	6.10***
NC	전산업	10901.2	114	4562.1	91	5.50***
	경공업	1504.6	44	499.6	31	4.80***
	중공업	8414.3	65	3629.5	49	4.04***

주 : ***는 99% 신뢰수준에서 유의적임을 나타낸다.

(2) 회귀분석 결과

〈표 7〉은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 형성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식 (4)와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의 개방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식 (5)를 추정한 결과이다.

식 (4)를 추정한 결과를 보면 전체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투자의 특정성, 임금격차, 지정제열화 제도 등이 수·위탁 분업생산체제의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과 경기변동, 자본구조의 불안정성 등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7〉 수·위탁 분업생산체제 결정요인

구분	ASR	UC	IP	DR	WD	QP	삼수항	R ²	
SC	전산업	6.084* (1.700)	1.836 (0.171)	0.118 (0.492)	-0.003 (0.216)	10.340** (2.419)	2.557** (2.144)	29.421** (2.480)	0.693
	경공업	0.336 (0.055)	2.502 (0.161)	0.018 (0.036)	0.015 (0.885)	25.495 (1.380)	-0.761 (0.084)	20.917 (0.723)	0.804
	중공업	5.582 (1.017)	2.983 (0.153)	0.167 (0.527)	-0.050 (1.576)	12.621** (2.477)	3.524** (2.433)	24.273 (1.348)	0.604
NC	전산업			2.898 (1.341)	0.0002 (0.000)	-0.309** (2.134)	0.147 (0.209)	11.209** (2.228)	0.500
	경공업			-3.935 (1.544)	1.241 (0.199)	-0.220 (1.065)	-0.031 (0.009)	17.892*** (4.838)	0.600
	중공업			4.991 (1.373)	3.270 (0.268)	-0.432** (2.092)	0.095 (0.110)	11.615 (1.218)	0.430

주 : ()는 t-통계량이며 *, **, ***는 각각 90%, 95%, 99% 신뢰수준에서 유의적임을 나타낸다.

투자의 특정성이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의 확산에 정(+)¹의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는 거래특정적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 있을수록 준통합을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하려는 동기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분석하지 않고 산업단위에서 분석한 결과라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하다.

임금격차를 이용하기 위해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 나라의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의 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거래비용론 관점 이외에도 다양한 시각이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홍장표 [10]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그는 1976년부터 1990년중의 32(섬유·의복 및 가죽)산업 및 38(금속제품·기계 및 장비)산업을 대상으로 한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와 하청비용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양자간에 정(+)¹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지정계열화 제도는 당초의 예상대로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의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1984년을 정점으로 지정계열화 품목 및 업종수를 점차 줄여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지정계열화 제도에 의해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가 확대되어 가는 효과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변동이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 확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상이하다. 경기변동과 수·위탁 분업생산체제의 확대에 관한 연구에 대해 하헌식 [9], 홍장표 [10] 연구는 다른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하헌식 연구는 1976년부터 1988년을 분석기간으로 한 중분류 산업단위의 분석을 통해 경기변동과 도급거래의 확대가 부(-)¹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 주었다. 예상과 달리 경기가 침체될수록 도급거래가 확산된다는 결과를 얻은 데에 대해, 그는 경기침체에 경기침체가 더 절실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홍장표의 연구는 1973년부터 1990년까지의 32(섬유·의복 및 가죽) 및 38(조립금속제품·기계 및 장비) 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단기적인 경기변동과 하청판매 변동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임으로써 경기변동의 조절판으로서의 하청역할을 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설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을 경공업과 중공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양 산업간에 차이가 있으며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도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경공업의 경우 설정된 제설명변수로는 경공업 부문의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의 형성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반면 중공업의 경우는 임금격차와 지정계열화 제도가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정계열화 제도의 효과에 있어 산업간 차이가 있음은 지정계열화 품목 및 업종이

중공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전체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달리 산업을 구분하는 경우에 투자의 특정성이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을 유도하는 효과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식 (5)의 추정 결과를 보면 수탁기업들의 거래선 다변화는 경기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가 침체될수록 수탁기업 거래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배경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수탁기업이 자신의 협상력을 기반으로 위탁기업의 부도 및 경영악화로 인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거래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경기침체에 전속적 거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거래선 다변화를 용인한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¹⁰⁾ 물론 위탁기업의 용인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수탁기업의 거래선 다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서 수탁기업이 여타 위탁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협상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존의 거래 위탁기업에 대해 우위의 협상력을 갖지 않는 한 위탁기업의 용인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선 다변화가 강행되는 경우 수탁기업들은 적지 않은 거래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탁기업의 거래선 다변화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위탁기업의 용인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수탁기업의 거래선 다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산업별로 보면 경기여건이 수탁기업의 거래선 다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공업의 경우 경기여건이 수탁기업의 거래선 다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경공업의 경우는 주어진 설명변수로는 수탁기업의 거래선 다변화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IV. 결 론

우리 나라의 산업조직 발전사를 기업간 분업생산체제 측면에서 살펴보면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가 확산해 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의 확산은 경제적 동기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

10) 본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실시한 주요 위탁대기업과의 면담 결과에 의하면 IMF 체제 초기에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위탁기업들은 수탁기업들의 거래선 다변화를 용인·장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외주처의 확대 및 거래처간 경쟁유발 등을 통해 납기안정 내지 품질향상을 도모하거나 전속거래시 수탁기업의 물량확보 및 수익개선을 보장할 수 없는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만 정부정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측면도 있다.

본 연구는 1990년부터 1996년까지의 중분류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의 확산에 기여했는지를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7개년의 17개 산업에 대한 패널자료를 이용해 고정효과모형 분석법에 따라 실증분석한 주요 연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투자의 특정성은 도급거래율에 정(+)¹⁾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거래특정적인 투자가 많아지는 경우에 거래비용의 절감동기에서 수·위탁 분업생산체제가 확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의 확산에는 저임금을 활용하기 위한 동기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계열화 정책은 당초의 예상대로 수·위탁 분업생산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경기여건이 악화될수록 전속적 거래를 탈피하고 도급거래의 개방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보다 진전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기업차원의 거래단위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필요하다. 수·위탁 분업생산체제는 개별 기업단위간에 거래단위로 일어나는 계약행위이다. 산업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분석은 자료통합에 따른 편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둘째, 분업생산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수명주기(life-cycle) 및 기술수준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술수준 문제를 살펴보면 동일 산업내에서도 높은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소재·부품과 저급의 기술로도 생산이 가능한 소재·부품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경우 위탁기업은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생산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술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부표 1〉 분석을 위한 산업분류 내역

산업코드	산 업 명
D15	음·식료품
D17	섬유제품
D18	의복 및 모피 제품
D19	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
D20	목재 및 나무 제품(가구 제외)
D21	펄프·종이 및 종이 제품
D22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품
D24	화합물 및 화학 제품
D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D26	비금속광물제품
D27	제1차 금속
D28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장비 제외)
D29	기타 기계 및 장비
D30	사무계산 및 회계용 기계
D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D32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D33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D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D35	기타 운송장비
D3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주 : D30, D31, D32를 동일산업으로, D34 및 D35를 동일산업으로 분류하여 총 17개 중분류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부표 2〉 경공업 및 중공업 부문 분석모형에 대한 상관분석

경공업	ASR	UC	IP	DR	WD	GP
ASR	1.0000					
UC	0.2189	1.0000				
IP	-0.0149	-0.0603	1.0000			
DR	0.2222	0.0720	-0.1365	1.0000		
WD	0.1520	-0.0533	0.0003	0.0139	1.0000	
GP	0.0287	0.0014	-0.0245	0.4880	0.0139	1.0000

종공업	ASR	UC	IP	DR	WD	GP
ASR	1.0000					
UC	-0.1531	1.0000				
IP	0.0032	0.2900	1.0000			
DR	0.1420	-0.1136	-0.0439	1.0000		
WD	-0.1395	0.0426	-0.1510	0.1329	1.0000	
GP	-0.2831	0.0642	-0.0097	0.2477	0.3123	1.0000

◆ 참고 문헌 ◆

1. 김기찬, 『시스템간 경쟁구조를 향한 대기업-중소기업간 분업적 협력모형의 개발: 일본의 사례연구와 응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원, 1995. 9.
2. 김주훈·조관행, 『개방화와 하도급체제의 개편』, 한국개발연구원, 1991. 6.
3. 백락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모형개발 연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94. 4, p. 65.
4. 어운배, "중소기업육성정책의 법이념과 체계",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정책비전』, 연구총서 제1집, 한국중소기업학회·중소기업연구원, 1995. 12, pp. 14~36.
5. 정병휴·윤창호, 『한국의 중소기업과 계열화』, 한국경제연구원, 1986. 12, p. 54.
6. 주 현, "협력기업 계열화 정책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업경제』,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5. 11, pp. 41~50.
7. _____,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위한 공정화시책의 현황 및 개선방향", 『기술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 1998. 7, pp. 1~22.
8. 최동규·김광희,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 : 과제와 개선방향』, 중소기업연구원, 1994. 12.
9. 하현식, "한국 제조업의 하도급에 관한 연구: 하청론과 거래비용론의 검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0. 12.
10. 홍장표, "한국에서의 하청계열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8.
11. 중소기업계열화촉진협의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편람』, 1996. 12.

12. 중소기업청, 『지정계열화 업종 및 품목 정비』, 보도자료, 1998. 12. 30.
1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각 연도.
14. _____, 『중소기업을 위한 계열화 시책 편람』, 1993.
15. Hsiao, C., *Analysis of Panel Dat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pp. 25~49.
16. Imai, K. and H. Itami, "Interpretation of Organization and Market : Japan's Firm and Market in Comparison with the U.S.,"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2, 1984, pp. 285~310.
17. Judge, G. G. et al., *Introduction to the Theory and Practice of Econometrics*, John Wiley & Sons, 1982.
18. Levy, D. T., "The Transactions Cost Approach to Vertical Integration : An Empirical Examina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LXVII(3), 1985, pp. 438~445.
19. Monteverde, K. and D. J. Teece, "Supplier Switching Costs and Vertical Integration in the Automobile Industry," *Bell Journal of Economics*, 13(1), Spring 1982, pp. 206~213.
20. Titman, S. and R. Wessels, "The Determinants of Capital Structure Choice," *Journal of Finance*, 43, 1988, pp. 1~40.
21. Williamson, O. E., "Transaction-Cost Economics : The Governance of Contractual Relation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2, 1979, pp. 233~261.
22. _____,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 Firms, Markets, Relational Contracting*, New York : The Free Press, 1985.